

2020
품앗이
공연예술
축제

열두번째

거리두기
안심축제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일정표 Schedule

실시간	현장공연 유튜브 생중계
녹화	사전공연 유튜브 송출

19^수 - 21^금

22^토

14:00 - 19:00 사랑채극장

스토리텔링 워크숍 방정환 이야기극 등 개발

13:00 - 14:00 녹화 와, 공통이다! 극단민들레	13:00 - 14:00 전디마당 체험프로그램 우리집(텐트)꾸미기 놀이체험	14:00 - 14:55 사랑채극장 실시간 무니의 문 작은극장H	15:00 - 15:30 전디마당 실시간 방울이의 낮잠여행 버블드래곤	15:30 - 15:50 다행이극장 실시간 심청이 못 봤소? 심청을 기다리며 솔레
16:00 - 16:30 사랑채극장 녹화 심청이 못 봤소? 남북이 차복이 극단민들레	16:40 - 17:20 사랑채극장 실시간 심청이 못 봤소? 청春, 淸淸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18:00 - 18:40 다행이극장 실시간 심청이 못 봤소? 뽀! Fun! 국악콘서트 아트컴퍼니달문	18:40 - 19:20 논두렁 실시간 자연·환경예술 되살 유진규, 송춘새, 이화리 주민들 외	19:20 - 20:00 다행이극장 실시간 봉산탈춤&탈태우기 봉산탈춤보존회

23^일

13:00 - 13:50 사랑채극장 현장 실시간 녹화 워크숍 발표 나도 방정환 -	13:00 - 14:00 전디마당 현장 실시간 녹화 체험프로그램 우리집(텐트)꾸미기 놀이체험	14:00 - 15:00 사랑채극장 현장 실시간 녹화 방정환 새로 알기 방정환 문학의 새로운 발견 장정희(방정환연구소 소장)	15:00 - 15:50 사랑채극장 현장 실시간 녹화 방정환을 노래하다 심심 프로젝트, 노래하는 꿈들이들	16:00 - 16:30 사랑채극장 현장 실시간 녹화 남북이 차복이 극단민들레
16:30 - 16:50 다행이극장 현장 실시간 녹화 몸으로 쓰는 시 송춘새	17:00 - 17:20 사랑채극장 현장 실시간 녹화 성냥팔이 소녀 이은채, 황지운	17:30 - 17:50 녹화 선물 아닌 선물 이은채	17:30-18:00 사랑채극장 현장 실시간 녹화 방정환 체험연극 <아버지> 어린이문화연대	

24^월 - 30^일

8월 24일(월) - 8월 30일(일)
온라인 (YouTube)

YouTube

8월 28일(금)
15:00 - 17:00
사랑채극장
실시간 온라인

YouTube

축제 실행을 일주일간 공개합니다.
축제에 초청된 작품과 퍼포먼스를 온라인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무니의 문' 작품은 8/24~26일까지만 송출됩니다.

예술인 포럼

주제: 코로나19 이후, 화성시 공연예술축제의 발전방향

Map_Theater Village Mindeulle

품앗이공연예술축제가 펼쳐지는 만들레연극마을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백길 22

거리두기 안심축제

2020품앗이공연예술축제 열두번째

일시 : 2020년 8월 19일(수) ~ 8월 30일(일)

장소 : 만들레연극마을

8.19(수) ~ 21(금) : 스토리텔링워크숍 (방정환 이야기극 등 개발)

8.22(토) ~ 23(일) :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8.28(금) : 예술인 포럼 '코로나19 이후, 화성시 공연예술축제의 발전방향' (온라인 생중계)

8.24(월) ~ 30(일) : 축제 다시보기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2020품앗이공연예술축제')

예술감독 : 송인현

프로그램 디렉터 : 박상순(경민대 교수) 기술감독 : 이동준 무대감독 : 이봉주, 김희수 조명감독 : 이성호(상명대 교수)

음향 : 스탠딩플러스, 큐사운드 촬영·유튜브중계 : 프로덕션 이리 미술 : 상상공작소(최범용, 김재범, 유경희, 현수영)

스태프 : 강진협, 김가솔, 김건우, 김민준, 김수정, 서우림, 석현준, 신진석, 이지성, 장준호, 정여진, 정예지, 주혜민, 최승별, 최은서

기획홍보 : 장계숙, 강명주, 박민주, 장은숙, 황지윤 화성시문화재단 축제2팀 : 이종래, 유용진, 심보라

디자인 : 플리웍스 최경일 번역 : 정서영

함께해요

화성시 예술가가 작사·작곡하고
 화성시 청소년들이 부른

손을 씻어요

작사 송인현 작곡 박이슬, 송인현 노래 김민준, 유현옥, 장나은, 홍비아

기 차 놀 이 해 요 — 기 차 놀 이 해 요 —
 손 을 씻 — 어 요 — 손 을 씻 — 어 요 —

5 기 차 놀 이 해 요 — 기 차 놀 이 해 요 — 앞 뒤 거 리
 손 을 씻 — 어 요 — 손 을 씻 — 어 요 — 앞 뒤 손 등

10 물 지 커 — 차 례 대 로 움 직 여 요 — 일 면 안 돼 끝 면 안 돼 —
 손 바 닥 — 께 께 하 게 씻 — 어 요 — 앞 뒤 손 등 손 — 바 닥 —

15 거 리 두 고 조 심 조 심 — 앞 사 람 뒷 사 람 — 발 밟 휘
 께 께 하 게 씻 — 어 요 — 서투 르 지 말 — 고 — 조 심 —

20 가 면 서 — 거 리 두 기 놀 이 해 요 — 거 리 두 기
 조 — 심 — 손 가 락 손톱 밑 빠 뜨 러 지 말 고 께 께 하 게

24 놀 이 해 요 — 기 차 놀 이 해 요 — 기 차 놀 이 해 요 —
 씻 — 어 요 — 손 을 씻 — 어 요 — 께 께 하 게 씻 — 어 요 —

29 거 리 두 기 놀 이 해 요 — 거 리 두 기 놀 이 해 요 —
 손 — 을 — 씻 — 어 요 — 께 께 하 게 씻 — 어 요 —

화성시 미술가들과 함께하는
 우리집 (텐트) 꾸미기





화성의 대표 축제 품앗이공연예술축제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최 형 오

작은 시골마을에서 축제를 진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한 두 번의 실험이 아니라 12회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농촌의 정경이 살아있는 곳에서 순수공연예술을 즐긴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해는 코로나19로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되었음에도 시골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축제이기 때문에 최소의 관객을 놓고 영상과 함께하는 대면축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예술가들과 주민이 함께 공연을 만들면서도 이들이 대면하지 않고 연습하고 최소의 대면으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이후 우리 공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실험하는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 관객들, 참가자들의 안전이겠죠. 끝까지 빈틈없이 안전에 유념하여 축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객여러분, 대면축제를 즐기시되 안전에 유념하세요. 영상으로 송출되는 축제도 많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Hwaseong's Representative Festival – Poomashi Performing Arts Festival

It is very difficult to host a festival in a small rural village. It's not just one or two experiments, but it means a lot in itself since it has lasted up to 12 times. In the countryside, it is known as a rare case in the world that pure performing arts are enjoyed in a place where rural scenes are still alive. For this year, even though many of the festivals organized by Hwaseong Cultural Foundation have been canceled due to COVID-19, we are able to hold a face-to-face festival with a minimum audience and a video as it is relatively safe to hold a festival in the countryside. What's special is that artists and residents make performances together, but they rehearse without facing each other and perform with minimal face-to-face. I think it's a good way to experiment with what direction our performance will go after the pandemic. Most important thing is the safety of everyone involved in the festival. Please keep your safety in mind until the end of the festival. Ladies and gentlemen – please enjoy the face-to-face festival but keep your eyes on safety. I hope you enjoy the festival which will be released through video as well!

여는글 Opening Speech



축제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극단민들레
대표 장 계 숙

올해도 품앗이공연예술축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공연예술계가 잔뜩 움츠러 들었지만, 품앗이는 작게라도 관객을 만날 수 있어 너무 다행입니다. 코로나 이후 영상으로 공연을 대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영상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과 대안으로 민들레는 축제를 통해 야외라는 공간을 제시합니다. 단순 야외가 아니라 자연이라는 공간으로 공연을 끌고 나갔습니다. 또 하루하루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에 맞게 관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올 해는 코로나19로 아시아예술가레지던스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젊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넣었습니다.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단순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이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앗이공연예술축제가 지속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I'm so grateful for opening the festival even in the amid of the pandemic!

This year, Poomashi Performing Arts Festival (PPAF) is able to meet you. Although the industry of the performing arts has hugely shrunk by COVID-19, I am so glad to meet the audience even in a small scale. Since the pandemic, the culture of online live streaming performances has increased, but I believe that we should think about alternatives to the online performances. As an alternative to this, Mindeulle offers the outdoor space for the festival. It is not just the outdoor space we're offering, but we've led the performances to the space the nature itself creates. Also, we have decided different themes from day to day. It will allow the audience to make diverse choices in relation to those themes. Because of the pandemic, we were not able to proceed Asian Artists Residents for this year. Therefore, we have run the storytelling workshops for young artists in S.Korea. PPAF is not about running a simple performance. However, PPAF conducts new experiments. I believe that the festival has this kind of power within itself. Please give us a lot of attention so that PPAF can continue in future.



올해도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열립니다!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예술감독 송 인 현

코로나19의 여파가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영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대면 축제를 진행합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송출하지만 이는 축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배려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에 맞춰 <거리두기 안심축제>로 진행합니다. 관객들이 이동할 때 거리를 지키기 위해 '기차놀이'를 하고, 가족 텐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손을 씻고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손씻기 노래 - 손을 씻어요'를 화성 예술가들과 함께 만들어서 캠페인 송으로 활용합니다.

또 야외공연을 많이 진행하여 안전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되살>퍼포먼스는 관객들이 논두렁에서 공연을 보고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논에서 공연을 펼칩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대안 공간으로 자연을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방정환의 날>로 정해 방정환 선생님의 작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품앗이공연예술축제는 살아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We still open the festival in this year!

The aftermath of COVID-19, is sweeping over the country. Many festivals have been canceled or replaced by online streaming platform. However, Poomashi Performing Arts Festival(PPAF) is the face-to-face festival. Of course, it will also be transmitted to the online live streaming, but it is for those who couldn't participate in the festival. The festival will be held under the sub-title of <Social-distancing Festival>. Therefore, when the audience move, we will use "the train play" to keep the safe distance between each other. Additionally, we set the family tents so that each family can keep a moderate distance from another. Moreover, to make all of participants to wash their hands, we will use the campaign song called, "Wash Your Hands", composed by Hwaseong artists.

On another note, we are paying lots of attention to the safety because we have lots of outdoor performances. Especially, a performance <Re-Alive> requires the audience to join the show at the end after they watch it at the ridge between rice paddies. We have chosen the nature as a new alternative to the after COVID-19. On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A Day of Bang Jung Hwan>, the audience will be introduced to Bang Jung Hwan's works in various ways. We will continue to put our efforts to make PPAF alive and resplendent.

초청작 Performances



작은극장H Theatre H
작·연출 한혜민
출연 이나영

무니의 문 Mooni's Door

8.22(토) 14:00 / 사랑채극장 / 6세 이상 / 55분

실시간

‘문의 세계’로의 특별한 여행이 시작된다! 책상이 무대가 되고, 학용품들이 살아 움직이는 테이블 오브제극

전학을 온 무니. 내일이 생일이지만 누구에게도 초대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무니는 우연히 ‘문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꿈꿨던 ‘무니의 문’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무니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A special trip to the world of doors! A table-object drama where a table becomes a stage, and school supplies move alive.

Mooni has transferred to a new school. Tomorrow is Mooni's birthday, but Mooni is unable to invite anyone. That night, Mooni accidentally travels to 'the world of doors'. From there, Mooni meets Mooni's door which is tightly closed. Can Mooni take a courage to open the door?



버블드래곤 BUBBLE DRAGON
작·연출 신용
출연 신용

방울이의 낮잠여행 Bangwooli's Nap Traveling

8.22(토) 15:00 / 잔디마당 / 전채관람가 / 30분

실시간

“엄마가 그리워 잠 못 드는 아이 방울이를 위해 꿈지기가 선물하는 낮잠여행”

작은 비눗방울부터 큰 비눗방울, 때로는 수많은 비눗방울이 공연자의 손에서 마법같이 나온다. 그중에 한 비눗방울이 방울이가 된다. 때론 공연자는 방울이가 되고 방울이를 조정하는 공연자가 되기도 한다. 온 가족이 비눗방울의 매력을 느끼고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A present of nap trip for a sleepy child, Bangwooli, who misses his mother"

From small bubbles to large bubbles, sometimes numerous bubbles magically come out of the performer's hands. One of the bubbles becomes Bangwooli. Sometimes the performer becomes Bangwooli, or he becomes the controller of Bangwooli. We hope it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whole family to feel the charm of bubbles and the warm love of family.



극단민들레
Theater Company Mindeulle
작·연출 송인현
출연 안영주, 이요셉, 김관희, 송인현

와, 공룡이다! Wow, Dinosaur!

8.22(토) 13:00 / 별관장 / 전채관람가 / 60분

녹화

연극마을 공사 중에 공룡뼈가 발견되었다.

황다한 박사는 땅 속에서 나무토막을 꺼내들고 티라노사우루스의 허벅지 뼈라며 좋아한다. 그리고 이를 '세계공룡학회'에 보고하겠다고며 안으로 들어간 사이, 조수들은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 공룡 놀이를 한다. 그러다가 조수 중 한 명이 타조 알을 갖고 놀다가 황다한 박사에게 혼난다. 박사는 그것이 화성공룡, 코리아케라톱스화성엔시스의 알이라며 그것으로 공룡을 만들겠다고 한다. 과연 화성공룡을 볼 수 있을까?

Dinosaur bones have been uncover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theater village.

Dr. Hwang Da-han takes a piece of wood out of the ground and is enthusiastically excited that it is the thigh bone of Tyrannosaurus. And as he goes inside to report it to the World Dinosaur Society, the assistants play with objects around them. Then, toying with an Ostrich's egg, one of the assistants gets scolded by Dr. Hwang. Dr. Hwang explains that it is the egg of Koreaceratops hwaseongensis - Hwaseong dinosaur - and he will create the dinosaur. Well, are we able to see the Hwaseong dinosaur in future?



유진규 몸 YUJINGYU BODY
출연 유진규, 송충새,
우정읍 이화리 주민들의

자연·환경예술 되삶 Reborn Life

8.22(토) 18:40 / 논두렁 / 전체관람가 / 40분

실시간

-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
-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자!

평화로운 시골(농촌) 마을에 역신들이 나타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파괴한다. 사람의 힘으로 역신을 물리치기엔 힘이 부친다. 이 때, 신성한 힘을 가진 선인이 나타나 역신을 제압한다. 역신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기 삶의 터전을 빼앗겨 인간세계까지 내려온 것이다. 선인은 춤판을 벌려 역신을 위로하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사람들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살(되삶)'을 생각하게 한다. 되삶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사는 것을 말한다.

- Return to nature.
- Return to the origin of life.

In a peaceful rural village, demons appear and destroy the world where people live. It is impossible for human to defeat the demons. However, a good man with a divine power appears to subdue the demons. The demons come down to the human village because they've lost their place due to human's greed. The good man opens the dance party to console the demons and then makes them to go back to their place. Then, the people start to look back on their past lives and think about "Reborn Life".

"Reborn Life" doesn't mean to go back to the past lives, but it is about abandoning the past and moving on with the present.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보존회
Bongsan Mask Dance-Drama
Preservation Society
출연 김성애 외 봉산탈춤보존회

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Intangible Heritage NO.17 Bongsan Talchum(Mask Dance)

8.22(토) 19:20 / 다랭이극장 / 전체관람가 / 40분

실시간

봉산탈춤은 우리나라 탈춤을 대표하는 가면극이다. 특히 제2과장은 붉은 가면 쓰고 활달하게 움직이는 춤으로 '벽사의식무(壁邪儀式舞)'라 하여 나쁜 귀신을 물리치는 의식 무(舞)이다. 이번에는 전형적인 탈판이 극 속으로 들어와 역신을 제압하고 역신을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

Bongsan Mask Dance is one of the very representative Korean traditional mask plays. In particular, the second section of the dance consists of fast and brisk movements with red masks; of which, it is a ritual dance that repels evil spirits. This time, a typical mask dance enters the play, and plays a role who defeats and comforts the demon.

심청이 못 봤소? Has anyone seen SIMCHUNG?

화성의 중심 철학은 「효」다!

‘행복한 화성’을 위해 효의 가치를 오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큰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고치기 위해 딸이 죽음을 택한다면 당신은 받아들이 수 있겠소?

오늘, 우리의 삶과 연관된 효를 생각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슬래 Sul Rae Creative Art Company
작곡 정재일, 한승석
연출 박정봉
출연 소리 박정봉, 건반 함경아



심청을 기다리며 Waiting For SIMCHUNG

8.22(토) 15:30 / 다람이극장 / 전체관람가 / 20분

실시간

전통 판소리 심청가는 눈먼 아버지를 향한 심청의 효심을 불교적 성찰로 담아냈다면, 이번 품앗이축제에서 피아니스트 함경아와 연출가 박정봉이 선보일 심청은 심청과 닮은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관통한 따뜻한 인간애를 노래와 연주로 선보인다.

곡명: 추억, 아마 아마 메로 아마, 없는 노래

If SIMCHUNGGA – a traditional Pansori epic chant – has been capturing SIMCHUNG’s filial duty toward her blind father through the lens of Buddhism, SIMCHUNG in this Poomashi Performing Arts Festival 2020 will be presented by a pianist Ham Kyungah and a director Park Jungbong. This version will show the warmth in humanity that transcends the time through the stories of three characters who resemble SIMCHUNG.

Repertoire : Reminiscence, Mother mother my mother, Salvation Song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Theater Company
Earth seen from Mars
각색 한혜수
연출 장항석 출연 한혜수, 장은지

청靑, 淸靑 Clean, Blue

8.22(토) 16:40 / 사랑채극장 / 전체관람가 / 40분

실시간

일반적인 공연형태에 관객의 다양한 참여를 끌어내는 토크형식을 가미한 형태

시대의 흐름에 맞는 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연

단순히 맞다 틀리다가 아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새로운 효에 대한 이야기 나눔

아버지 눈을 띄우려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 심청이 인당수에 빠져 하염없이 바다속으로 빠져들자 괘씸부인이 용왕님께 석고대죄 심청을 살리려 하는데...

An interactive theatre with the audience to join a talk.

A performance that allows us to think about the filial duty in the present.

It is not about right or wrong, but to share stories of new filial duty and respect the differences from each other. SIMCHUNG falls into Indangsu to open her father's eyes~! As SIMCHUNG keeps falling deeply into the ocean, Mrs. Gwak prays to the God of the ocean to save SIMCHUNG...

아트컴퍼니달문
Art Company Dalmoon
작·연출 아트컴퍼티달문
출연 송문수, 박이슬, 김한길, 유선경, 김동국



뻔! Fun! 국악콘서트 BBeon! Fun! Gugak Concert

8.22(토) 18:00 / 다래이극장 / 만5세 이상 / 40분

실시간

친구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있나요? 심청이는 어떤 노래를 들었을까요? 듣기 편한 창작국악곡과 연주자가 직접 들려주는 악기소개를 통해 오늘의 심청이들에게 신명나는 무대를 선사합니다.

연주곡: 만춘만춘곡, 바람의 빛깔, 프론티어, 신크놀이, 봄은 오더이다

What kind of music have you been listening to? What kind of music had SIMCHUNG listen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instruments and creative Korean traditional music that is easy to listen, we will present an exciting performance to the today's SIMCHUNG.



극단민들레
Theater Company Mindeulle
작·연출 송인현
출연 송인현, 윤원중 외

남복이 차복이 Nambok & Chabok

8.22(토), 8.23(일) 16:00 / 사랑채극장 / 전체관람가 / 30분

녹화

한 공연 두 얼굴. 토요일 공연에선 눈을 뜬 심봉사가 황성에 오면서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요일엔 '방정환 선생님이 지금 계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까'하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나무 석단밖에 안 되는 복을 갖고 태어난 '남복'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차복'이의 복을 빌어 살게 된다. 어느 날, 거지 부부가 남복이네 집에서 아이를 낳는다. 거지부부는 주인의 호의에 감동해서 아이의 이름을 '차복'이라고 짓는데...

The two faces of one performance. On Saturday's performance, Simbongsa – who opened his eyes – tells the interesting story he heard on his way to Hwang-seong. On Sunday's, he tells the story 'what kind of story would Bang Jung Hwan tell if he's alive till today?'

Born with only one blessing, Nambok lives on the blessing of an unborn Chabok. One day, a beggar couple gives birth to a baby at Nambok's house. Being moved by Nambok's generosity, the couple has named their baby as Chabok...

방정환의 날 A Day of BANG JUNG HWAN



방정환연구소
BANGJUNGHWAN RESEARCH
INSTITUTE
작·연출 방정환연구소
출연 장정희 (방정환연구소 소장)

방정환 새로 알기-방정환 문학의 새로운 발견

New Discovery of Bang Jung-hwan Literature

8.23(일) 14:00 / 사랑채극장 / 전체관람가 / 강의 40분, 토론 20분

실시간

이 시대 방정환을 새로 만난다.

방정환의 대표 작품 '만년 샤쓰', '철철단의 비밀', '사월그믐날밤', '사랑의 선물' 등 문학 이야기를 통해 방정환의 사상과 문학의 새로운 가치를 만난다.

Meet Bang Jung Hwan in this era. Through the stories of Bang Jung Hwan's representative works such as "The Special Shirt", "The Secret of 77", "The Last Day of April", and "The Gift of Love", we will meet the new idea and value of literature.



심심 프로젝트, 노래하는 꿈틀이들
Simsim Project & The Singing
ggumtles
작·연출 박우진
출연 박우진, 정혜심, 신희준, 조현주,
최운서, 한시은

방정환을 노래하다 Sing about Bang Jeong-hwan

8.22(토) 15:00 / 다랭이극장 / 전체관람가 / 30분

실시간

어린이해방운동가, 어린이문화기획자, 아동문학가, 출판인, 공연연출가, 배우, 독립운동가 등 수많은 수식어로도 모자랐던 서른두 해 방정환의 삶. 진정한 '어린이의 벗'으로 살다간 방정환의 모든 것-그의 작품, 그의 글, 그의 삶-을 심심프로젝트와 노래하는 꿈틀이들이 노래로 들려준다.

As a children's liberation activist, children's culture planner, children's literature writer, publisher, director, actor, and independence activist, Bang Jung Hwan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world to cultivate the culture during his 32 years of life. All of his works reflects him as a true friend of children. His works, his writings, and his life will be sung by Simsim Project and The Singing ggumtles.



송춤새 Song Chumsae
안무·출연 송춤새

몸으로 쓰는 시 Dance Poem

8.23(일) 16:30 / 다랭이극장 / 전체관람가 / 20분

실시간

방정환 선생님의 시 <바람>과 <화분을 들고>의 이미지를 빌어 시적감성을 몸으로 표현한다.

<바람>은 씩씩한 바람과 온화한 바람의 이미지를 갖고 움직임을 만들었다. 번민과 우환을 몰아내고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 <화분을 들고>는 사랑과 감사함이 하아시스 고운 꽃 향기로 피어나는 것을 몸으로 표현했다.

She uses the images of Bang Jung Hwan's poems <Wind> and <With a Flowerpot> to express poetic sensibility through her body. <Wind> has created the movement with the image of vigorous and gentle winds. <With a Flowerpot> will show the love and gratitude blooming from the beautiful scent of a hyacinth.



이은채, 황지윤
Lee Eunche, Hwang Jiyun
작 안데르센 각색 이은채
연출 송인현 조연출 황지윤
출연 이은채

성냥팔이 소녀 The Little Girl with a Match

8.23(일) 17:00 / 사랑채극장 / 전체관람가 / 20분

녹화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를 각색하여 오브제를 이용한 그림자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뒤의 소녀, 소녀는 죽었던 그 날로 돌아가 이야기꾼이 되어 자신의 죽음을 들려줍니다. 소녀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들이 우산 속 그림자가 되고 마지막엔 큰 빛이 소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새로운 성냥팔이 소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We adapted Andersen's The Little Match Girl as a shadow play using an object. The girl who is already dead, goes back to the day she died and becomes a storyteller of her own death. Everything she misses and wants to see has now become a shadow in an umbrella. At the end, a big light goes up to the sky with her. You will meet a new match girl.



이은채 Lee Eunche
작 방정환
연출 송인현
출연 이은채

선물 아닌 선물 The Gift That's Not Like Gift

8.23(일) 17:30 / 사랑채극장 / 전체관람가 / 20분

녹화

옛날 한 나라에 임금보다 부자라고 소문난 '안씨'가 있었습니다. 임금은 자기보다 부자라면 임금을 갖지 못한 귀한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씨를 잡아들여 사흘 안에 "낮도 밤도 아닌 때에, 말도 아닌 말을 타고, 옷도 아닌 옷을 입고, 선물 아닌 선물을 내 놓으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mous "Ahn" who was said to be richer than a king. The king believed that if Ahn was richer than himself, there would be a precious treasure that he could not even have. Therefore, he arrested Ahn and demanded "When it's neither day nor night, ride a horse but not horse, wear clothes that are not clothes, you have to bring me a present that is not a present." How can a person achieve this?

방정환 체험연극 <아버지>

Bang Jung Hwan's Interactive Theatre <Father>

8.23(일) 17:30 / 사랑채극장 / 전체관람가 / 30분

어린이문화연대
Childrens Culture Union

관객들과 방정환의 아버지 대본을 읽고 바로 장면을 만든다. 간단한 대본이기 때문에 즉흥적인 요소를, 현재의 입장에서 새로 접목하면서 연극을 할 수 있다. 재미있는 연극 만들기를 하다보면 저절로 어린이 해방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Create the scene with the audience right after reading Bang Jung Hwan's <Father> together. It is pretty simple script, so we can perform the play with some improvisations from our current perspective. Creating an interesting play leads me to think about children's liberation.

포럼

Fourm

“코로나19 이후, 화성시 공연예술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연예술축제 전문가와 예술가, 학계, 관계자분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 : 코로나19 이후, 화성시 공연예술축제의 발전방향

일시 : 2020년 8월 28일(금) 15시~17시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생중계

장소 : 민들레연극마을

좌장 :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발제 : 코로나19 이후, 화성시 공연예술축제의 발전방향

구제민 화성시문화재단 축제사무국장

송인현

품앗이공연예술축제 예술감독

코로나 이후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고 축소되었다.

취소하고 축소하는 것이 답일까? 축제를 통해 생각을

모으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는 없을까!

코로나 이후 야외 공간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품앗이공연예술제가 열리는 민들레연극마을은 야외라는

개념을 넘어 자연극장 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미래 축제로 가는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

Since the COVID-19, a lot of festivals has been canceled. Is canceling or reducing the number of festivals really an answer? Can't we gather new thoughts and recharge new energy through the festivals?

After the pandemic, the outdoor space is drawing great attention. PPAF in TCM Play Village has the well-equipped natural theatre environment that goes beyond the concept of outdoor space. We have lots of potential to open the future festivals.

류재현

문화기획자

코로나 19시대, 더 창의적이고 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대안이다! 코로나 19시대에도 가능한 공연예술축제기획은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현재 전세계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대안적 공간의 활용”을 들 수 있는데, 테라스, 발코니, 루프탑, 야외공간을 활용한 공연예술축제기획이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는 기존보다 더 창의적이고, 더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In the era of COVID-19, the more creative and the more nature-friendly places are possible alternatives! What possible alternatives do Performing Arts Festivals have in amid of the pandemic? Now there are many options emerging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the remarkable option we have to note is “the use of alternative space”: for instance, using terrace, balconies, rooftop, or other outdoor spaces. I would like to argue that the COVID-19 demands for the more crea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space than ever before.

박상순

경민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

"지금/여기"의 예술. 공연예술의 "존재론적 조건"에 변화가 생겼다. 연희자와 관객이 한 공간에서 만나 교감하는 기회가 위협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강소축제, 마니아축제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관객과 공연의 밀도와 특성이 강화된 변별적 공연예술축제의 파생 콘텐츠 가능성도 기대해 본다.

The art of "Now/here". There has been a change in an "existential condition" of performing arts. The opportunity for performers and audience to interactive in one space is now threatened. In this condition, we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small-scale festival and mania festivals. I look forward to the possibility of derivative contents from this PPAF, which strengthens the density and characteristics of audience and performances.

오순환

용인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

예전의 공연예술축제들이 고밀도의 대중을 선호하였다면 코로나19시대에는 저밀도 운영방식이 요구되는 바, 당분간 소비자 군락을 찾아 소규모 맞춤형 축제를 공급하여 우호적 시민 집단을 육성해야 한다. 향후 그들이 주체가 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승화

If the previous performing arts festivals preferred high-density public, low-density operation methods are required in the century of COVID-19. And for the time being, small-scale customized festivals should be provided to foster community-friendly groups. It should be sublimated into a citizen-participating festival in the future where they will be the main body.

박석운

화성시 창문아트센터 관장

위기의 상황속에서 공연예술은 온라인이라는 출구를 찾았지만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한다. 잠시 멈춤의 상태인 지금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호기이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공연예술은 온라인이라는 출구를 찾았지만 경쟁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한다. 잠시 멈춤의 상태인 지금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호기이다.

Under the circumstance of the crisis, the performing arts have found an outlet via 'online' but it should grow into a competitive platform in order to turn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In a state of pause, now is the time to prepare for the upcoming future.

송지연

서울거리예술축제 총괄PD

코로나 19 시대, 공연예술축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축제의 본질을 확립하는 것이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축제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그 물음에 대해 답을 찾고 이를 관람객과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는 내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어떤 이유론든 추구해온 외적 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각각의 축제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들여다보고 이를 다듬어 나가는 기회로 이 시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In the era of COVID-19, what is most needed for the performing arts is to firmly establish the essence of the festival. Why should the festival be continued even in the amid of the pandemic? I believe that the festival will achieve its internal growth through the processes of searching for an answer to the question and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We should look at this crisis as an opportunity to find the uniqueness of each festival and refine it by breaking away from its external growth we've pursued so far.



민들레연극마을 | (주)극단민들레

18573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뱅곳길 22 tel.031-358-7587
Theater Village Mindeulle | Theater Company Mindeulle
(18573) 22, Ihwabaenggot-gil, Ujeong-eup, Hwaseong-si, Gyeonggi-do, Korea
+82-31-358-7587 e-mail mdl365@hanmail.net

(주)극단민들레 서울연습실

07288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69 301호 tel. 02-3663-6652
Theater Company Mindeulle Seoul Branch
(07288) 301-ho, 469, Dorim-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82-2-3663-6652



주최 | 화성시문화재단

주관 | 이화뱅곳마을

후원 | 화성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협력 | 파티캐어주

본 축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코로나19관련 방역 및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합니다.
진행 전 열 체크, 손소독을 실시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